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 51)

사진 : 김선곤 베드로(동래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 연중 제19주일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9,4~8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 (© 97)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후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1.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사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2.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3.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4.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돌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2독서** 에페소서 4,30~5,2

**복음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요한 6,4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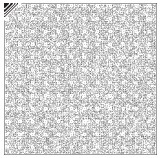
**영성체송** 시편 147(146~147),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례 및 강론은 5면에 있습니다.**



# 영원한 생명의 새로움



음식이 육체적 생명을 영위하게 해 주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는 원천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귀로 듣는 말씀만이 아닌, 음식으로 섭취하는 빵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모순적인 두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어떤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생명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이해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라는 말은 변화하고 움직이는 생명의 본질이 매 순간 ‘새로움’으로 가득 차서, 이 새로움이 끝도 없이 이어져서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새로움은 죽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도 이 새로움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 체험에 기꺼이 참여할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해가 뜨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에 참석할 때에도 반복되고 늘상 형식적으로 똑같은 전례에 식상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뜨는 해, 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떤 ‘새로움’을 매순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서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며, 생기를 북돋워서 생생하게 만듦으로써, 하느님의 생명과 이어주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어 줍니다.

육체적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노화하고 쇠퇴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생생하게 살아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보살핌이나 손길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몸을 모시기에 합당하도록 내 마음을 얼마나 보살피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김형수**  
베드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햇빛은 구석에서 더 찬란하다.

작고, 낮고, 사소한 것들을  
쓰다듬는 소리,  
오늘도 들려오는 그 소리.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8.13(월)~14(화)  
김형수 신부(신학대학 교수)

8.15(수)~18(토)  
원형준 신부(범일성당 부주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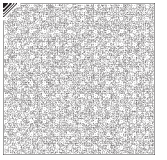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유지민 아나운서

8.15(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출연: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8.15(수) 분당 리포터  
출연: 원구룡 베드로 형제 (태종대성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8.17(금) 12:15~14:00  
진행: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우린 찬양사도 출연: 영광흠 바로로 신부

**신부들의 수다** 8.18(토) 13:00~14:00  
진행: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출연: 김정웅 신부(장산성당)



## 부산가정성당의 역사성 및 상징성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인 1890년 초, 당시 조선 교구장이었던 블랑 주교는 경상남도 지역에 최초의 사제로 조조 신부를 절영도(靑 嶺道)에 있던 조내기 공소(靑 淸峯성당 수녀원 자리)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륙에서의 전교 활동을 위해서는 매번 배를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기 때문에 조조 신부는 전교활동의 근거지를 부산의 중심지로 옮겨갈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부산포의 초량에 성당부지(靑 淸峯 부산가정성당 터)를 매입합니다. 1899년 5월에 새로 부임한 드망즈 신부는 초량으로의 이전 계획을 뮌텔 주교에게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으며, 그해 10월에 현 "부산가정성당" 부지 위에 일본식 목조건축 성당을 완공하고 '부산성당'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1901년부터 일본인 거

류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부산성당' 인근까지 확장되었으며, 특히 경부선 철도 기점에 대지 일부분이 포함되어 성당 이전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르장드르 신부와 줄리앙 신부가 성당 이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고, 당시 조선교구장이었던 뮌텔 주교에게 성당 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황 비오 10세는 1911년 4월 8일에 대구대목구 분할을 허가하면서,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드망즈 주교가 초량에서 범일동으로 성당 이전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16년 5월, 당시 '부산성당'의 주임이었던 페셀 신부는 범일동에 목조와 벽돌조로 새 성당을 신축하여 '부산성당'을 이전하면

서 '부산진성당'으로 새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상남도의 첫 성당이자 우리 교구의 첫 성당인 '부산성당'이 옮겨가게 되면서 '부산성당' 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였으나, 119년이 지난 2018년, 그 첫 '부산성당' 터에 새로이 "부산가정성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 ■ 성전 봉헌식

일 시. 8월 19일(일) 14:00 (봉헌미사, 축하연)  
장 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9-16번지  
※ 성전 수용 인원 관계로 초대장이 있으신 분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부산성당

한처음  
교구가  
시작될 때

### 성체대회를 통한 신심함양

교구 초창기에 신자들의 신심 운동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개인으로는 묵주기도를 통한 성모신심을 함양했고, 공동체로는 성체대회를 통한 성체신심의 함양이었다. 1958년 9월 28일 처음으로 교구 성체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그리고 부산교구 내의 미국 군인 가톨릭 신자들과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성체대회는 대미사, 성체거동, 성체강복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성체거동 행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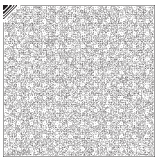


장엄하고 화려하여 부산 시민들에게도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1958년 제1차 성체거동 행렬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성체거동 행렬은 예수님 성상을 선두로 성체대회 현수막·태극기·교황기·성조기·유엔기 등이 따르고 그 뒤를 미국·국군·대양공업고등학교의 악대와 중고등학생들이 성가를 합창하면서 행진하였다. 뒤이어 중앙성당 교우들·수도자·성직자·향로 대열이 따르고, 각 성당 연합 천사 대열이 성체를 운위하였다. 연합 천사 선두 대열은 백의의 소녀들로서 화관을 쓰고, 꽃들을 성체 앞에 퍼 놓았다. 성체 뒤에는 간호사들·가톨릭 합창단·서대신성당 교우들·해성학교 악대·그 뒤를 부산 시내 각 본당 교우들이 행진하였다. 이 행렬의 길이는 약 2km에 달했다." 『교구 30년사』

성체대회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외교인들의 인식과 관심을 높임으로써 교세확대와 신자들의 사기도 진작되었다. 하지만 성체대회는 6차례만 개최되었고, 70년 이후에는 신앙대회로 바뀌면서, 행렬은 없어지고 집회가 되었다.

■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jubo@catb.kr



요즘 영화가에선 '신과 함께'란 영화의 인기가 111년 만의 기록을 깬다는 '한증막 더위'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신과 함께-인과 연'이라는 이 영화는 개봉 5일 동안 540만 명을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100만 명이상이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역대 최단 시간 500만 명 돌파, 하루 최다 관객 기록(1,466,416명) 등 종전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연말 개봉한 이 영화의 1편인 '신과 함께-죄와 벌'은 관객 14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에선 "역대 관객 동원 1위인 영화 '명량'의 기록(1762만 명)을 뛰어넘을까?", "1편과 2편을 합해 관객 동원 3000만 명의 대기록을 세울까?" 등으로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엔 이런 기록들보다 물질만능, 감각중심의 세태에 '신(神)'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영화

가 이렇듯 인기를 끄는 것이 의외로 비쳐집니다.

물론 이 영화는 '신(神)'을 정통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샤머니즘, 도교적 관점에서 본 저승의 세계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만화적 상상과 영화적 흥미, 디지털 기술적 가공 등을 더해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이를 제 방식으로 다르게 읽어 봅니다. 티베트 불교에 '사자의 서'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바르도 퇴돌'이란 불경입니다. '바르도'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차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세계를 뜻합니다. '바르도'는 우리말로 '중음천'쯤 됩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차태현 등이 지나가던 심판 단계와 비슷합니다.

'퇴돌'은 '듣는 것을 통한 영원한 해탈'이란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한 '바르도 퇴돌'은 '이 세

계에서 저 세계로 가는 중간에서 한 소리를 들어 해탈을 한다'는 얘기가 된다. '사이의 세계에서 한 소리를 들어 환생과 업보의 악순환에서 벗어난다'는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훗날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요한 10.14~16)

저는 가장 먼저 저승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승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이웃 안에서, 미사에서 주님을 뵈려 노력해야 합니다. 교우들의 연도도 큰 힘이 되겠지요.

■ 박주영 첼레스티노

남천성당 • 언론인 park21@chosun.com



저는 항상 돈을 엄청 많이 벌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렸는가요? 돈이 많아야 남들에게 베퉴 수도 있고 성당에 헌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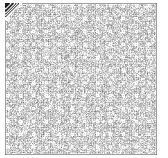
본당 사목을 했을 때 교무금과 헌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교무금을 많이 낼 줄 알았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지만 자신의 수입에 비해 교무금을 적게 내는 교우들도 적지 않으며, 수입이 별로 없지만 교무금을 자신의 수입에 비해 많이 내는 교우도 있었습니다. 시골 가난한 본당이 도시 부유한 본당보다 1인당 헌금액이 더 높습니다. 이웃 본당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다른 본당에서 모금을 가 보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유한 본당이라고 모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본당에서 모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진다고 저절로 남을 돕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머니가

두둑해질수록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돈이 있어야 베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재벌 2세로 태어나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부유함에서 하느님의 참된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경제 원리, 돈의 논리, 경영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공동체는 사랑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비록 돈이나 권력 등 가진 것은 없으나 사랑으로 마음이 부유하면 거기에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먼저 더 베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권순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albkw93@hotmail.com



# 성모님처럼 우리도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봉독한 묵시록 12장에는 열두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하늘에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나 아기를 삼켜 버리려고 여인이 해산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자마자 하느님께서 아기를 당신 어좌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달아납니다. 그곳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 12,5,9은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그를 삼키려는 그 용은 옛날 창세기의 뱀, 사탄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여인은 우선 교회를 상징합니다. 열두 개의 별로 된 관을 쓴 모습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천상에서 누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며,

광야로 달아나 하느님의 처소에서 보호를 받는 모습은 사탄의 공격 아래서도 하느님 처소에서 보호 받는 지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모습은 성모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님과 교회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성모님을 교회의 모상, 곧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주 묘사하곤 합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과 더불어 지상 교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1,14 참조)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성모님께서 세상 삶을 모두 마치신 뒤, 예수님처럼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느님께로 들어 올림을 받으시어

열두 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처럼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가 앞으로 누리게 될 종말, 곧 마지막 날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 뜻에 순명하며 지상 교회에서 충실히 살아간다면 종말에 부활하여 승천하리라, 곧 천상 교회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늘에 오르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성모님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염 철 호**  
사도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성모 승천 대축일 전례

**제 1 독서** 요한 묵시록 11,19ㄱ; 12,1~6ㄱ. 10ㄱ. 12

**화 답 송** 시편 45(44), 10. 11. 12. 16 (© 10ㄱ)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1.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서 있나이다. ◎
2.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3.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4.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5, 20~27ㄱ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 음** 루카 1, 39~56

**영성체송** 루카 1, 49. 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가톨릭부산 앱에서 가톨릭부산 주보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 가까운 성당을 찾으시나요?

교구지도로 한눈에 교구 내 본당, 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미사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도로뷰도 함께 제공되어 본당 순례 때에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예쁜폰배경으로 꾸며보세요!

주보 표지사진 및 다양한 이미지를 휴대폰 배경화면 및 SNS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해드립니다. 배경화면 바꾸는 방법은 게시판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iOS(아이폰)

## 교 구

### 2020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8.18(토) 14:00~19(일) 13:00 · 부산 은혜의 집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 일반  
문의 : 629-8760

### 8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 지역] 8.26(일) 15:00~18:50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100% 인터넷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 본 당

### 가야성당 8월 성령치유대피정

· 8.14(화) 12:30~17:00 · 가야성당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  
강사 : 마진우 신부(대구대교구),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교해성사) / 문의 : 010-6679-5345

## 기관·제 단체·위원회

### 오순절평화의마음 후원회 미사

부산 : 8.13(월) 11:00 남천성당  
문의 : 782-0765

### 빈민사목 후원미사

· 8.13(월) 10:30 · 문현성당  
주례 : 윤희동 신부 / 문의 : 467-1045

### 제1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13(토)~11.10(토) 매주 토요일 15:00~21:00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 (종교무관)  
접수 :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문의 : 010-3460-0696, 010-6408-6111

### 제5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1(목)~11.8(목) 매주 목요일 10:00~15:00  
(5주 과정) · 교구청 5층 강당  
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 (종교무관)  
접수 :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문의 : 010-9907-1767, 010-2202-0470

### Arca 청년성서모임 떼제 미사 (울산)

울산 : 8.13(월) 20:0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주례 : 이주홍 신부  
문의 :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8.16(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 성 정하상 바오로 / 문의 : 515-0030

###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8.18(토) 11:00 · 가톨릭센터 사제관 소성당  
주례 :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 462-1784

###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울산 : 8.25(토) 10:00 옥동성당  
부산 : 교정시설 방학으로 인해 8월 후원회 미사 없음 / 문의 : 441-7729

###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8.13(월) 19:30 전포성당  
· 8.15(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  
· 8.13(월) 11:00~16:00 (미사, 도유와 안수)  
- 수요 치유기도회  
· 8.15(수) 10:00~16:00  
중식 제공, 버스: 운행표 참조  
- 철야기도회  
· 8.17(금) 22:30~18(토) 04:00  
- 448차 일반성령묵상회  
· 8.17(금) 19:00~19(일) 17:30  
회비 : 일반 10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지하도 입구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말씀 치유피정  
· 8.24(금) 19:30~26(일) 15:20  
강사 : 문봉한 신부(대구대교구) / 회비 : 10만원  
입금계좌와 버스편은 신청자께 문자 드림

### 노동사목 가족 여름수련회 (영화피정)

· 8.15(수) 14:00 · 노동사목센터 (사상성당 옆)  
참가신청 및 문의 : 441-6403

### 성체조배회 2018년 기도영성 강좌 개강

· 8.29~매주 수 14:00~16:00 광안성당 성전  
· 8.30~매주 목 14:00~16:00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강사 : 안창호 신부(예수성심전교수도회)  
주제 : 마을의 영성(심화과정)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정 (12주 과정) / 대상 : 전 신자  
문의 : 466-2290, 각 본당 성체조배회

## '가톨릭부산' 주보 2500호 기념

## 주보에 바란다 & 축하 메시지

교구 홈페이지 주보에 **바란다** 게시판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새롭게 다루었으면 하는 점 등을 남겨주시거나,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고급 LED 우드 시계)  
교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주보가 되기 위해 많은 의견 바랍니다.  
(기간 : 8월 15일(수)까지)



## 혼인미사 예약 및 예식 안내

혼인미사 예약 접수 : 9.2(일) 09시부터  
혼인미사 예식 시작 : 9.8(토) 11시부터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형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

###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패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 (주)발해투어

1. 8/27 나가사키성지순례  
카멜 4일 47만 9천원  
2. 대마도 매일 12만 9천원~  
3. 일본/히라도 매일  
카멜 3박4일 19만 9천원~  
항 프란치스코 253-5887

###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202-3011**  
이국영 (베드로)

###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준(모터스)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매매, 수출, 말소, 폐차  
대표전화: 010-3599-6420  
현 중 삼(요셉) 관허 제9호

### 하지정맥중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박우일(요셉), 박동욱(안드레아)  
**754-9975~6**  
센텀시티역 11,13번 출구 센텀임페리얼타워 15층

### 법무법인 울강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대표번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

### 거제주단

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테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면 안쪽 화장실 옆

### 사회복지 법 인 성요셉의 집

입 소 상 담  
(055) 365-1910  
장기요양등급 1~5등급  
(1~4인실 선택가능)  
www.st-joseph.co.kr

**Senda 찬양스토리 <주님께 가는 길>**

· 8.18(토) 15:00 · 서면성당 센다  
 참가비 : 1만원 / 주제 : 생명의 양식  
 출연 : 김재관 신부, 송동진, 계만석, 박소정, 남석균, 게스트 홍진우 / 문의 : 010-9861-9064

**한국콜핑협회 신청하계연수회**

· 8.18(토)~19(일), 경호강레프팅과 뱃사골탐방  
 · 경남 산청 콜핑하우스 / 문의 : 010-3838-1025

**빈민사목 반송 빛들레 나눔가게**

내용 : 의류, 신발, 가방(새 그릇 택배 및 작배가능)  
 문의 : 542-0242, 467-1045, 010-2886-6467

**제5기 영성심리상담 강좌(2학기 심화과정)**

· 8.27~12.17 매주 월 14:00~17:00 · 가톨릭센터 3층  
 과목 : 마이크로상담기법, 사다나 명상요법, 집단상담, 트라우마 치료기법, NLP 치료기법, 상담실습 / 강좌료 : 20만원(모든 교재 무료 제공)  
 강사 : 조옥진 신부, 이상훈 박사 / 특혜 :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상담학회 수련과정 인정  
 문의 : 463-7866, 010-6742-0106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8.13(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8.14(화) 10:00 · 이기대성당  
 · 8.17(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성모 승천 대축일 1일 무료피정**

· 8.15(수) - 성시간, 강의, 찬미, 고해성사, 미사  
 · 마리아피정센터(동향성당 내) / 점심 제공  
 신청 : 8.14(화)까지 / 문의 : 010-4940-4819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사랑의성모수녀회 후원가족미사**

· 8.13(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예수회 무료 월례특강 및 미사**

· 8.17(금) 14:00~17:00 · 부산 성분도 은혜의 집  
 주제 : 주님, 이런 저를 쓰신대구요?  
 강사 : 정희강 신부 / 문의 : 010-9344-3843

**분도명상의집 렉시오디바나(성독) 월모임**

· 8.25(토) 10:00~17:00 · 분도 명상의 집  
 참가비 : 1만 5천원 / 준비물 : 성경, 미사준비  
 문의 : 010-3271-0766(권 벨라렛)

**새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피정**

· 8.26(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 왕영수 신부 / 신청 : 8.22(수)까지  
 참여비 : 1만원(중식 포함)  
 문의 : (052)239-1249, 010-5488-1239

**성바로수도회 말씀학교 강좌**

· 8.29(수) 10:00~12:30 (매주 수요일) 미사 있음  
 · 가톨릭센터3층 / 수강료, 자료 : 무료 제공  
 주제 : 바오로 서간 2부 3편 필리, 콜로새서  
 문의 : 010-9333-6260(양은철 신부)

**부산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낮반 : 9.4~2019.2.26 매주 화요일 14:00~16:00  
 저녁반 : 상동일 19:00~21:00  
 청년반 : 9.3~매주 월요일 19:00~21:00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 15만원(분납 가능)  
 내용 : 성경 속의 마리아(전례, 역사), 영성, 사도직, 발현 등 / 문의 : 010-4940-4819, 634-4845

**성심기도원 개원37주년 찬양치유피정**

· 8.17(금) 21:00~19(토) 15:00 (주교님 미사)  
 · 성심교육관 / 문의 : (031)262-7600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8.18(토) 14:00	서울 개회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8.19(일) 13:30	본원	010-2835-4858
작은예수수녀회	전화상담	전화상담	010-8939-7970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개설**  
 수업 : 주 5일(월~금) 4시간/일, 개강 : 9.10(월)  
 대상 :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지원자격 : 제한인원 내에 등록 순 선발 / 수업구성 : 한국어 능력에 따라 15명 이내의 클래스 구성 / 내용 :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교육  
 장학제도 : 반별 성적 우수자에 한해 다음 학기 학비 일부 지원  
 문의 : 510-0866, dengnx@cup.ac.kr(한국어교육센터)  
 입학처 : 051-510-0701~4 / www.ipsi.cup.ac.kr

**“말기 암환자 돌봄의 안식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의 완화의료전문가로 구성  
 - 기도실, 임종실, 상담실, 목욕실, 프로그램실, 가족실 등

**부산가톨릭의료원 진료상담 및 문의 461-2471**

**가톨릭선교**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다목적 공간 에코(ECHO)**  
 (복음의 메아리, 믿음의 반향, 마음의 울림)

**합주, 연습실, 녹음실, 자료실의 다목적 공간 오픈!**  
**많은 관심과 사용문의 바랍니다**

사용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b>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b>  <b>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b>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b>851-4545, 010-3597-4641</b></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b>성모치과</b>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b>633-8228, 634-8228</b>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b>동래로타리</b>  <b>독일보청기</b>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b>555-5777</b>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b>김용기내과의원</b>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쿠니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과전문의 8명  <b>상담 및 예약 245-7100</b></p>	<p><b>백천피부과의원</b>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파)  <b>758-1100</b>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p>
<p><b>제이스 귀금속</b>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b>633-4549, 634-4539</b>                  박정희(요셉), 손혜경(요세파)  <b>010-8661-3631, 010-3558-3630</b>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p>	<p>동래 <b>참사랑요양병원</b>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베스)</p>	<p><b>미래고속관광</b>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환(리차드)  <b>055-333-6300, 010-3720-0303</b></p>	<p><b>박숙현</b>  <b>정신건강의학과의원</b>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알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에스텔)  <b>611-3339</b>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b>더고운 피부과 의원</b>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세원(마태오)  <b>558-7575</b>                  은천장동 동래출몰러스(튀턴) 우성빌딩 3층</p>